

사람과 성장을 이어주는 한국산업인력공단

HRD Korea

**HRD 사용법**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
사업주 훈련

지금은 출근중

2020년도
신규직원 교육 현장

HRD Focus

8월 28일
일학습병행법 시행

08

2020
AUGUST
vol. 290

발행일 2020년 8월 1일
발행인 김동만
편집인 김선영
등록번호 울산중, 라00006
등록일자 1982년 9월 29일
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홍보실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전화 052.714.8195
팩스 052.714.8200
제작 디자인글꼴
디자인 김은희
글 정소야, 김민정, 김혜민, 이슬기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591-1
전화 051.636.1210
www.ggad.co.kr



QR코드를 스캔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보 구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해 DREAM

04—05

NOW HRD

국가자격정보,
카카오톡에서 확인 쉬워진다

06—07

HRD 사용법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
사업주 훈련

08—11

HRD 현장사용법

사업주 훈련 운영기관
(주)글로벌휴먼스

함께해 DREAM

12—13

채용의 정석

자신감을 심어주는 공정한 경쟁,
서울신용보증재단

14—17

지금은 출근중

HRD 전문가로의 도약을 위한
3주간의 힘찬 여정

18—19

HRD Focus 1

한층 더 체계적인
'산업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일학습병행법이 8월 28일 시행됩니다!

20—23

HRD Focus 2

일학습병행 운영 기업
대흥소프트밀(주)

약속해 DREAM

24—25

생생 꿈지도

새로운 직업의 발견,
그 시작을 자격증과 함께하다

26—27

신박한 자격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지키는 자격
수질환경기사 vs 토양환경기사

28—31

똑똑 여행

드라마 속으로 떠나는 여행

32—33

취업에 직방

미적 감각과 마케팅 센스
모두 필요한 VMD직무 분석

HRD DREAM

34—37

돌아온 팀플전

국가직무능력표준원
협동 공 튀기기 도전

38—39

인싸 책방

너 어디에서 왔니?

40—41

당신의 청렴지수

관행을 뿌리칠 용기

42—43

HRD 뉴스

44

독자후기

인적자원에서

인적자원개발전문가로!



(왼쪽부터) 하명주 주임, 윤나리 주임, 장아정 주임, 이준호 주임

HRD는 모두의 미래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2020년도 공단 신규직원들입니다.

인적자원전문기관인 공단의 일원이 되어 다양한 교육과 실무 경험을 통해 조금씩 성장하는 중입니다.

우리의 꿈은 HRD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공단의 인적자원이자 인적자원개발전문가로 HRD의 미래를 밝히겠습니다.

국가자격정보, 카카오에서 확인 쉬워진다

한국산업인력공단—(주)카카오와 업무협약 통해,
국가자격정보 연계 및 활용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국가자격 정보를 포털사이트(Daum)와
커뮤니케이션(kakaotalk) 등의 플랫폼을 통해 한눈에!



공단이 (주)카카오와 지난 7월 7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국가자격정보 연계 및 활용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단은 국가자격정보와 카카오가 보유한 플랫폼을 연계해 국가자격 수험자와 취득자에게 자격정보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오픈채팅 등의 편의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그간 공단은 국가자격정보 누리집 큐넷(Q-net)을 통해 자격정보를 제공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포털사이트(Daum)와 커뮤니케이션(kakaotalk) 등의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하여 자격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다. 서비스 시점 등 상세정보는 국가자격정보 누리집 큐넷(Q-net) 통해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카카오 플랫폼을 통해 국가자격 수험자와 취득자에게 국가자격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국가자격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공단에서 시행한 국가자격시험의 수험자는 정보처리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350만 명, 공인중개사 등 국가전문자격 50만 명으로 총 400만 명이었다.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 사업주 훈련

제도 소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주 훈련)이란, 사업주(=사업장 대표)가 소속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예) ○○건설의 사업주 김○○ 사장이 소속근로자 최○○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건축설계 심화과정’이라는 훈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경우, 이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훈련 유형

■ 훈련 대상에 따른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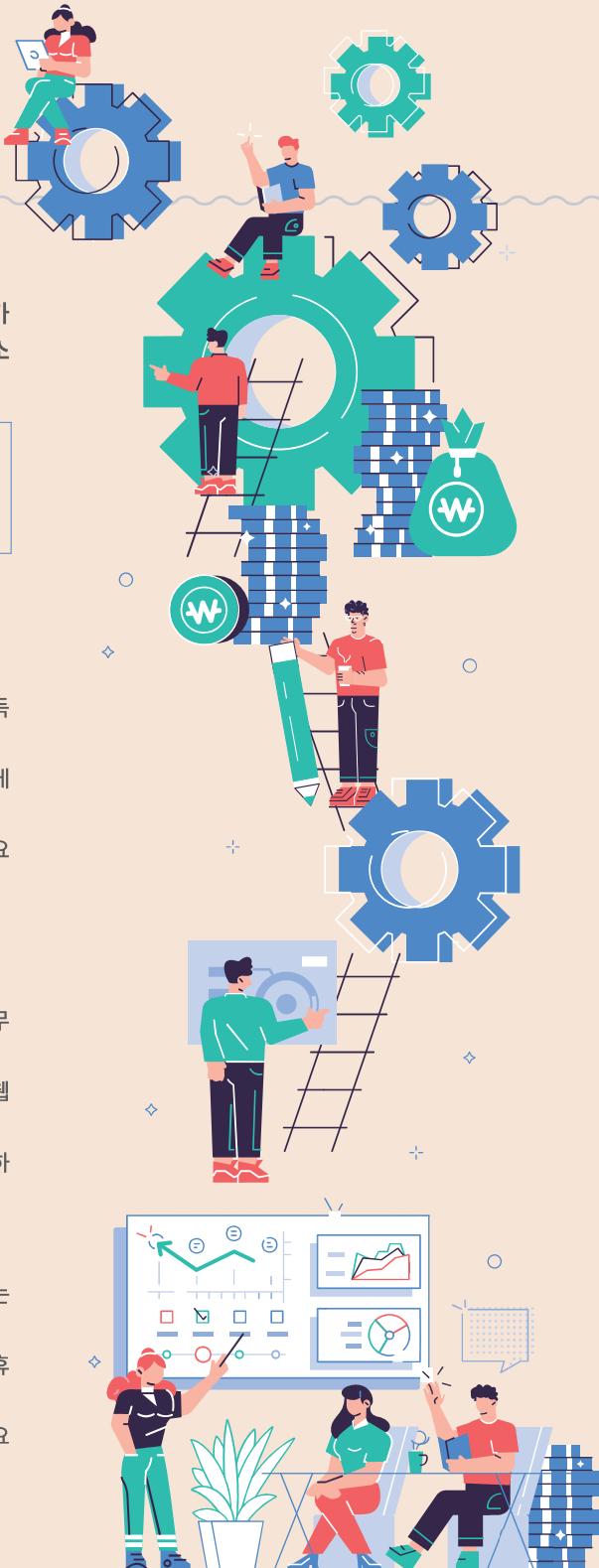
- 양성훈련 :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기초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향상훈련 : 재직근로자로서 기초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수준의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전직훈련 : 근로자 등에게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 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훈련 방법에 따른 구분

- 집체훈련 : 훈련이 적합한 시설에서 실시하는 훈련
- 현장훈련 : 실제 근무장소와 동일한 환경에서 상사 또는 선배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지식, 기술 등을 습득하는 훈련
- 원격훈련 : 정보통신매체(인터넷·스마트), 인쇄매체(우편)를 활용하여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
- 혼합훈련 : 집체, 현장, 원격훈련 중 두 종류 이상의 훈련을 병행 실시하는 훈련

■ 특화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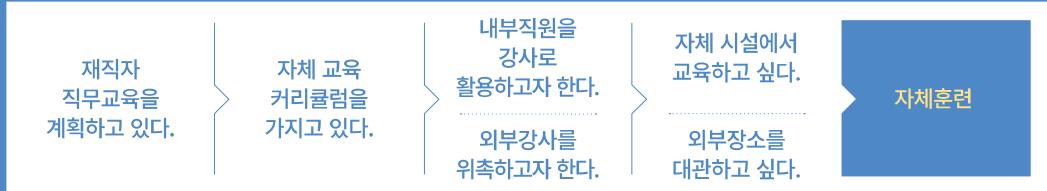
- 고숙련·신기술 훈련 : 근로자 대상으로 숙련도 향상을 위해 고숙련 또는 신기술훈련(NCS5 수준 이상) 과정으로 심사를 통해 인정된 과정
- 유급휴가 훈련 :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이상 유급휴가를 주고 훈련을 실시할 때 지원되는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
- 감정근로자 훈련 : 감정근로자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훈련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한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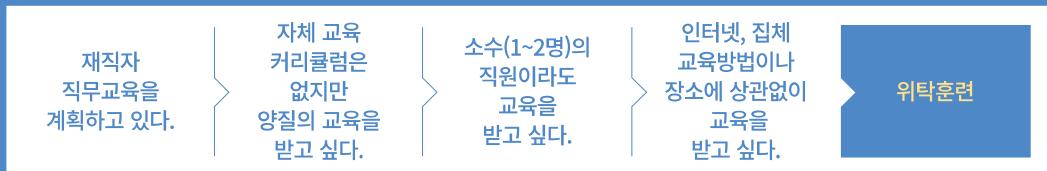
훈련 참여

자체훈련과 위탁훈련 중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다.

- 자체훈련 :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훈련계획 수립,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직접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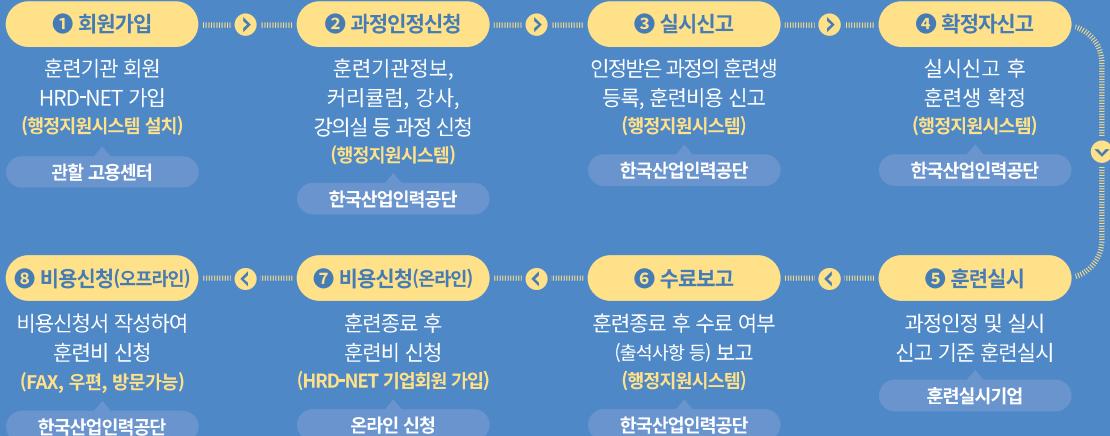


- 위탁훈련 :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를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 실시



참여 절차

회원가입, 과정인정신청, 실시신고, 확정자변경신고, 훈련실시, 수료보고, 비용신청 순으로 진행



- 과정인정 신청, 실시 신고, 수료 보고 : 훈련실시 장소 관할 공단 지부, 지사
- 비용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부, 지사로 신청

운영 현황

연도	훈련실시 인원	실시사업 장수
2016	2,861,753	125,803
2017	4,350,283	145,998
2018	6,211,552	170,679
2019	2,423,223	106,863
2020.6	934,715	55,922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가장 빠르고 바른 초석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주)글로벌휴먼스



(왼쪽부터) 유준 대리, 안나현 차장, 우영주 부장

(주)글로벌휴먼스는 패션매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솜마니저로 육성하는 패션유통 전문인력 육성 기업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아래 최고의 패션유통 전문가를 키워내고 있는 (주)글로벌휴먼스. 그들이 들려주는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만나보자.

사업주 훈련으로 새로운 인재 양성에 도전하다

(주)글로벌휴먼스는 2010년 (주)챔피언스라는 이름으로 설립됐다. LG패션 직영매장에 필요한 영업인력 및 FA육성을 목표로 세워진 이 회사는 설립과 동시에 FSM(Fashion shop Manager, 이하 FSM) 제도 수립 및 운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는 그간의 관행을 깨고 도제식 교육에서 탈피해 새로운 방식으로 전문가를 키우겠다는 의지를 만천하에 표방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주)글로벌휴먼스가 직원을 현장의 패션유통 전문가로 키우기 위해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바로 교육이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사업주 훈련)을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사업주(사업장 대표)가 소속근로자 등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을 실시할 때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주 훈련 프로그램’은 2010년부터 자체 교육프로그램이 있던 (주)글로벌휴먼스가 근로자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돼 주었다.

회사가 사업주 훈련 지원을 받아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패션유통의 전문가를 육성하고자 하는 이유는 명확했다. 기존의 솔 영업 구조는 판매직원에 대한 의존이 절대적이었다. 일 잘하는 직원이 확보하고 있는 단골손님을 상대로 판매를 하고 그 직원이 자리를 옮기면 단골들도 우르르 같이 빠져나가는 악순환 속에서 수익구조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시대는 변화하는데 전통적인 판매전략만을 끌고 가는 것 또한 상황을 악화시키는 데 일조했다.

“전문적으로 솔매니저를 육성하는 이유는 기존 방식을 고수해서는 패션유통업계의 발전과 성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매장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매니저가 가르쳐주는 대로 일을 배워요. 그렇게 10년 정도를 일하면 매니저라는 직함을 달게 되지요. 복종(복장 종류)에 따라 차이도 큩니다. 신사복 같은 경우는 10년 차, 15년 차에도 솔 매니저 직함을 달기가 쉽지 않거든요. 도제식으로 배우면 결국 똑같은 방식으로 판매·운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배운 대로 하니까요.”

교육팀 안나현 차장의 설명이다.



배운 것은 바로 현장에 적용한다

(주)글로벌휴먼스는 사업주 훈련을 통해 신규직원들이 빠르게 매장에 적응하고 직급별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아 최종적으로는 기업 경영 및 비전에 관한 마인드까지 갖추길 바랐다. 그 때문에 현장 중심의 OJT 교육을 통해 배우고 익힌 것을 매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은 회사의 중요한 목표였다.

훈련과정은 오프라인 교육 11개, 온라인 교육 8개 등으로 구축됐다. 집체훈련과 원격훈련의 병행으로 이루어진 이 시스템 안에서, 집체훈련은 교육생들에게 필수 이수교육이었고 원격훈련 역시 다양한 교육생들이 스마트기기들을 충분히 활용해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 본 사업주 훈련 과정은 (주)글로벌휴먼스가 각 과정을 직접 개발하였으며, 회사의 설립과 함께 교육이 시작되어 사업주 훈련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수정을 거쳐 현재의 직급별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현재까지 700명이 넘는 FSM들이 본 교육을 이수했고, 매장영업에 실제로 적용하고 있다.

“FSM은 직급별로 총 4단계 교육을 합니다. 스태프-리더-마스터-매니저 단계에 걸맞은 커리큘럼을 진행하는 거지요. 스태프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판매기법, 고객 응대, 컴플레인 처리, 상품정보 파악, 트렌드를 찾는 법 등을 교육을 받고 리더는 세밀한 실무로 들어가 재고관리, 고객관리, 매장의 운영관리를 학습합니다. 마스터 이상으로 가면 리더십 교육을 포함한 사람관리, 매장

손익분석 방법, 매출 목표 달

성전략, 재고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 등을 배우게 됩니다. 최

종적으로 매장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완성형 전문가를 만드

는 거죠.”

영업팀 우영주 부장이 교육 과

정에 대해 더욱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사업자 훈련 과정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들

(주)글로벌휴먼스는 사업자 훈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이후에도 직원들이 그 긴장감을 유지하고 현장과 괴리되지 않도록 애쓰고 있다. 훈련 이수 후 현장평가 결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함으로써 본사교육과 매장교육이 하나로 어우러지도록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강사 역시 강의 종료 후 평가 작업을 통해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강의의 질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화된 사업자 훈련 과정은 (주)글로벌휴먼스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운영매장의 매출이 위탁경영 대비 평균 10% 이상이 늘었고, 퇴직률은 67%에서 37%로 업계 평균(60%) 대비 23% 이상 낮아졌다. 그리고 이러한 여정은 2019년 사업주 훈련 우수사례 경진대회 중소기업 부



문에서 ‘금상’을 수상함으로써 더욱 공신력을 얻었다. 혹자는 패션사업의 사양화를 이야기한다. 백화점 판매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이고 P.C(Post Corona) 시대의 비대면 일상으로 암울한 앞날에 확신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그러나 (주)글로벌휴먼스의 생각은 다르다.

“패션의 무인화 작업은 이미 시작됐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래서 전문 FSM이 더 경쟁력 있다고 봐요. 매장에는 이미 태블릿 PC가 갖춰져 있고 스마트 미러를 통해 고객님께 코디 제안도 합니다. 의류 판매에서 라이브 방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것이고, IT기반의 세일즈는 전문교육을 받은 젊은 FSM에게 두려움 없는 도전의 영역이 될 거예요. 전통적인 판매 위에 다른 형태의 마케팅을 개척해나가는 거지요. 전문가 양성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업주 훈련, 일학습병행 등 국가지원 사업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희망의 미래를 앞당기고 있는 (주)글로벌휴먼스. 이들이 사업자 훈련을 통해 보유한 뛰어난 인재 풀은 대한민국 패션유통의 앞날에 결코 꺼지지 않는 빛을 밝힐 것이다.



“
사업자 훈련을 통해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교육팀
유 준 대리

MINI INTERVIEW

사업주 훈련을 통한 교육 중 고객관리, 서비스에 대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현장경력이 20년 이상된 매니저님께서 본인의 고객관리 비법과 고객과의 커뮤케이션 스킬을 강의해주셨어요. 교육 때 배운 내용을 매장에서 실제로 적용했고, 매장을 방문했을 때 저를 먼저 찾아 주시는 고객들이 늘어나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현재는 본사 교육팀에서 근무하며 사업자 훈련 교육, 일학습병행 업무, 패션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온라인스토어, 오프라인스토어가 결합된 옴니형 스타일 매장을 관리하는 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앞에서 언급하였던 매장 관리, 고객관리 기법을 매장에 적용해 새로운 매장 경영법을 영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백화점, 자사 온라인몰을 같이 운영하는 매장도 있는데, 최근에는 라이브방송을 백화점에서 촬영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새로운 루트를 만들었습니다. 한 매장의 시도로만 끝나지 않고 노하우를 매장 전체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을 기본으로 한 끝없는 도전정신이 빛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블라인드 채용
우수사례 ⑤

자신감을 심어주는 공정한 경쟁, 서울신용보증재단

특화된 블라인드 채용과정

도입 배경

- | 지원자의 잠재 역량을 보기 위해 채용프로세스 전면 개편
- | 공정한 절차로 적격자 채용

추진 내용 및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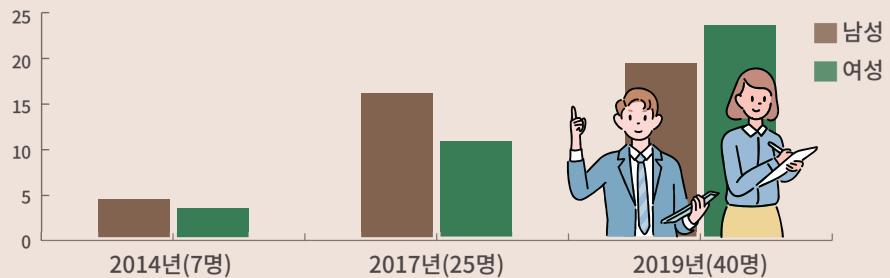
- NCS 기반의 ‘통합 직무 기술서’ 도출 배제
 - 채용공고 시 통합 직무 기술서 공개로 직무 내용 명확화
- 직무수행에 필요한 NCS 직업 기초 능력 평가 실시 권고
- 직무 관련 경험 및 토의면접 등 면접도구 개발

성과 및 성공요인

- | 블라인드 채용 이후 직원의 직무만족도 상승



- | 일자리 창출 및 신규직원 입사자 성비 역전



향후 발전 방안

- | 민간 전문기관의 ‘비인지’ 영역에 대한 면접도구로 개발된 ‘AI면접’ 시범 테스트
- | 내부 면접위원 양성을 위한 채용전문면접관 자격증 취득

블라인드 채용으로
인한 변화



“
회사와
지원자 모두
원원하는 채용방식! ”



이 재 현 차장

서울신용보증재단 인사부 인사기획팀



“
교육훈련 비용을
절감하는
블라인드 채용! ”



김 연 진 주임

서울신용보증재단 강서지점 재기지원팀

Q —— 블라인드 채용의 가장 큰 장점은?

A —— 지원자 입장에서는 모든 지원자가 인적사항 등의 편견적 요소가 배제되어 동일한 출발점에서 경쟁을 한다는 점에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회사에 적합한 인재 선발을 위한 다양한 전형도구들을 활용하여 조직과 직무에 딱 맞는 인재 선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지원자와 회사 모두가 원원(win-win)한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 ——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평가한다면?

A —— 지원자의 경우 공정한 경쟁구도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채용절차에 참여하게 됩니다. 채용기관의 경우 더 많은 지원자를 만나기 때문에 적합한 인재를 찾을 기회가 많고, 직무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채용하면서 교육 훈련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와 채용기관 서로에 선순환을 불러일으키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많은 기업들에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속 시원한 대답을 원해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Q&A

Q —— 직무관련 경험사항은 경험사항(동호회 등)에서 어떤 직무를 맡았는지를 의미하나요?
아니면 이러한 경험사항이 기관의 어떤 직무과 관련되는지를 의미하나요?

A —— 둘 다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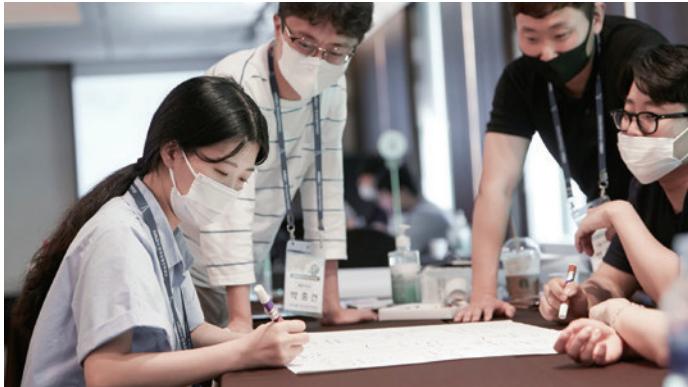
공단 신규직원들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이 지난 7월 1일부터 17일까지 약 3주에 걸쳐 울산 현대호텔에서 시행됐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교육기간 동안 마스크를 낀 채로 참여한 신규직원들은 때론 성실하고 진중하게, 때로는 재미있고 유쾌하게 수업에 임하며 HRD 전문가로서의 첫걸음을 뗐다. 앞으로 공단의 미래를 환히 밝혀나갈 신규직원들의 교육현장 소식을 담았다.

HRD 전문가로의 도약을 위한

3주간의 힘찬 여정

2020년도
신규직원 교육 현장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실무중심 신규직원 교육 프로그램

입직교육을 위해 이른 오전부터 교육장으로 모여든 신규직원들은 장시간 이어지는 교육과정에도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열띠게 조별 토의를 진행 중이다. 이번 교육 후반부에 배치된 ‘핵심역량향상 프로그램’ 수업현장 풍경이다. 총 11개의 조로 나뉘어 각자 부여받은 과제를 프레젠테이션과 동영상으로 제작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이들의 모습은 시종일관 진지했다. ‘기성세대 선배들의 문화 이해하기’, ‘고객과의 상호존중을 위한 소통문화 만들기’, ‘공단조직별 사업성과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신입사원들의 전략’ 등 다채로운 주제의 과제를 수행한 이들은 완성한 내용을 동료들 앞에서 직접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며 HRD 전문가로서의 내실을 든든히 다졌다.

이번에 시행된 교육은 신규직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전체 교육기간은 약 3개월가량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필수 실무교육을 위한 교육은 기존 5주에서 3주로 축소 진행됐지만, 이를 보충하기 위해 공통역량 개발 부문에서는 온라인 기반 비대면 교육방식을 적용, 언택트 교육기간을 늘려 더욱 안전하게 능력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눈에 띈다.

교육 효과 극대화를 위한 철저한 보완책 마련까지

공단 신규직원들의 조직문화 적응력 향상과 직무역량 개발을 위해 마련된 ‘2020년도 신규직원 교육’은 크게 직무 관련 전문·기술 지식, 보고서 작성법, 핵심조직가치 및 공직윤리 등의 기본교육과 사업별 심화교육으로 구성됐다. 참여인원은 총 61명으로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공채를 거쳐 입사한 이들은 3주간의 학습내용을 평가하는 랩업평가를 마지막으로 지난 17일 무사히 교육을 마쳤다. 이후부터는 개별 평가결과를 통해 스스로 부족한 점을 확인, 자기주도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온라인 교육 및 학습 멘토링을 받을 수 있으며, 이수 후에는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통해 교육성과를 측정할 예정이다. 결과는 차후 교육설계에도 반영되는데, 올해 신규직원 교육모듈 역시 전년도 운영성과와 교육생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편성·진행됐다.

한편, 이번 교육과정은 업무수행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공단 내부 직원들이 강사로 위촉돼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한 이론·실습 수업이 이뤄졌다는 평이다. 올해 2020년도 신규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새내기 직원들이 공단의 미래를 이끌어갈 HRD 전문가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회가 되었길 바라본다.

신규직원 교육 현장 MINI INTERVIEW

신규직원 4인이 들려주는 교육소감 & 입사비결
나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이렇게 만났다!

본부 적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실무 교육
덕분에
자신감이
커졌어요!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장 아정 주임**

대학에서 광고를 전공하다 보니 실무가 무척 중요했어요. 그때 선배와 동기들이 일학습병행을 통해 현장경험을 쌓는 것을 보고 공단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굉장히 실용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믿음 가는 기관이라는 생각에 입사를 꿈으로 삼게 되었죠. NCS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영상으로 기초를 다진 뒤 독학으로 준비했어요. 블라인드 면접은 최대한 긴장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특히 단어나 키워드 형태로 머릿속에 마인드맵을 그려 넣고 답하는 연습을하게 큰 도움이 됐어요. 공단이 첫 직장이다 보니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됩니다. 인생2막이 열렸다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전지역본부**하명주 주임**

저는 평소에도 공단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공단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입사 준비를 하게 됐어요. 먼저 NCS 유형을 익히고, 면접도 NCS 기반의 직무 관련 질문들로 미리 준비했어요. 무엇보다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 답변하는 것이더군요. 또 ‘진인사대천명’이라는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최대한 긴장하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공단은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여러 부서를 순환하며 일을 배우게 될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과 다양한 일을 만나게 될까요. 태평양처럼 넓고 깊은 공단의 바다를 항해할 생각에 벌써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QR코드를 인식해
신규직원 교육
현장을 만나보세요!



보고서
작성 강의는
실무에
딱
맞습니다!



얼굴 그리기,
체육활동
덕분에
동기들과
친해졌어요!



인천지역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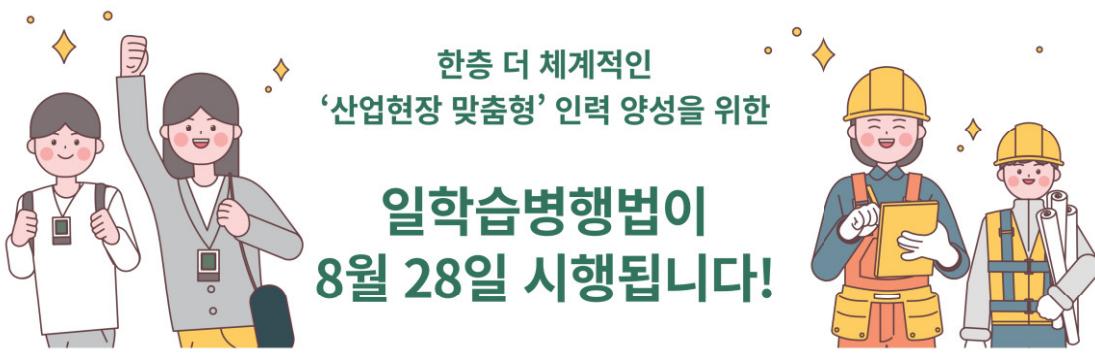
이 준호 주임

제 입사비결은 공단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적극적으로 표현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소개서에 쓴 경험이 실제 공단에 어떤 도움이 될지 질문하셨는데, 최대한 적극적이면서도 솔직하게 답변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선착순 답변이었는데요, 면접관님이 ‘생각나는 사람 먼저 답변하세요’ 하는 순간 긴장이 확 몰려오더군요. 그래도 용기를 내어 6명 중 제일 먼저 손을 들어 발표했는데, 정답의 유력함보다 적극성에 플러스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공단이 첫사랑이자 끝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단에서 좋은 인연 많이 쌓으며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쭉 함께하고 싶습니다.

경남지사

윤 나리 주임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근로자 능력 개발의 중요성을 알게 됐어요. 그 일을 공단이 담당한다는 것도 그 때 알았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기관이라는 생각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6개월 정도 입사 준비를 하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공단 사업을 꿈꼼히 익혔어요. 실제 면접에서도 스펙에 대한 질문은 없었고 공단 사업, 경험 위주의 질문이 많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이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간섭하는 것이 사랑인가”라는 질문이었는데,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런 정답이 없는 질문에는 최대한 솔직하고 담백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면접 팁인 것 같습니다. 첫 직장인 공단에서 초심을 잊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제 꿈이자 목표입니다.



학습근로자 보호와 체계적인 학습기업 지원 기반 마련

지난해 8월 27일,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일학습병행법)이 제정된 후 올해 8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14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일학습병행'은 독일·스위스의 도제제도를 한국 실정에 맞게 설계한 훈련으로, 기업이 청년 등을 우선 채용한 후 체계적인 현장훈련과 학교 등에서 이론교육을 추가로 병행하는 일터학습 중심의 훈련이다. 심각해지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할 방안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과 학습근로자 보호 등 일학습병행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음은 일학습병행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이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일학습병행법은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인 일학습병행의 내용과 방법 및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일학습병행과 자격을 연계하여 학습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 ① 일학습병행은 산업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학습근로자의 적성·능력에 맞게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 ② 일학습병행은 학습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소양 등 직업 능력을 맞춤형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 ③ 일학습병행은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학습근로자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예정인 직무,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및 사업장 외 교육훈련은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 ④ 일학습병행은 학습근로자가 습득한 직업능력이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자격과 연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능력중심사회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Q 법이 시행되면
학습기업에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Q 법이 시행되면
학습근로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첫째 학습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맞춤형 교육훈련과 함께 임금을 받습니다.

둘째 학습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과 학습권을 보호받습니다.

*학습근로계약 : 학습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면서 제15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과정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고,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일학습병행과정을 개설하여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습근로자와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셋째 외부평가에 합격하면
국가자격인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일학습병행자격 : 일학습병행에 따라 인정받은 기술, 기능 및 서비스 분야 등의 자격을 말한다.

첫째 일학습병행정보망을 구축하여
학습기업이 청년구직자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연계체계 운영을 지원합니다.

*학습기업 : 제15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에 따라 일학습병행을 실시하는 기업으로 제13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업을 말한다.

*학습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로서 학습기업의 사업주에게 일학습병행을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둘째 기업 내 일학습병행을 위한 핵심인력인
기업현장교사 육성을 지원합니다.

*기업현장교사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또는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갖춘 사람으로서 학습기업의 사업주로부터 해당 학습기업의 학습근로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소양 등을 전수하도록 제19조에 따라 지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셋째 기업맞춤형 훈련과정 개발, 훈련비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학습 병행

숙련기술과
장인정신으로



기술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다

김대인 (주)대흥소프트밀 대표



(왼쪽부터) 송창환 주임, 이원재 사원, 이주현 과장, 최수정 사원, 장민석 사원, 김대인 대표

최초, 리더, 선두… 이 단어들은 일견 달콤하지만, 그 무게와 책임감은 더없이 묵직하고 쓰다. 아낌없는 나눔과 지원으로 숙련기술인을 양성해 기술강국 대한민국의 명성을 드높이고자 하는 김대인 대표의 이야기를 들여다봤다.

숙련기술인의 길

김대인 (주)대흥소프트밀 대표는 공조냉동분야 대한민국 명장이다. 1989년 기술 하나만을 믿고 창업을 한 뒤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가 남긴 족적은 대한민국 제과제빵 업계를 이야기할 때 따로 분리할 수 없을 만큼 깊숙이 아로새겨져 있다.

서른네 살에 창업을 하고 10년간 SKC에서 냉동기 분야 AS용역을 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지만, 그는 자체 제작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았다. 수입품으로 치우친 제과제빵 기계, 냉동기의 ‘국산화’는 그의 오랜 목표였던 것이다. 국내 최초의 인버터 도우컨디셔너 개발은 그의 집념과 기술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성과였다. 이후 회사는 제과제빵 기계 30여 종을 생산해내면서 자타공인 업계 1위 기업으로 우뚝 서 지금까지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김대인 대표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다. 자신이 45년간 쌓아온 경험과 기술, 더 나아가 근성까지 어린 꿈나무들에게 전수하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된 것이다.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우수한 품질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수한 숙련기술인 확보가 절실했습니다. 회사의 지속성장을 위해 숙련기술인 인재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보자는 생각을 한 거죠. 2013년 저는 사내에 (명장)기술교육원을 개원했습니다.”

외부에서 직업 훈련교수를 초빙, 인력양성사업에 과감히 착수했다. 또 기술교육원 교육과 현장교육, 두 개의 축을 융합해 커리큘럼을 만들었다. 현장맞춤형 교육으로 실습, 생산성, 숙련성을 제고하면서 우수한 숙련기술인을 만들겠다는 의지였다.

“때마침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정부 일학습병행이 발표되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결과 국가 제1호 시범사업체로 선정이 되었죠. 덕분에 최신 훈련장비를 도입하고 다양한 복지시설까지 갖출 수 있었습니다.”

학습근로자들은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기업자체 맞춤형 교육훈련과정을 통해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총 2,400시간을 공부했고, 현재는 1년에 총 960시간을 공부하고 있다.





배움이 곧 일, 일이 곧 배움

미래를 이끌어갈 숙련기술인들을 키우고 싶다는 김 대표의 꿈에 일학습병행이라는 국가지원이 덧입혀지자 인재양성 교육은 더욱더 탄력을 받았다. 그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 (주)대홍소프트밀에는 입지전적인 인물이 한 명 탄생했다. 일학습병행 훈련 1기로 2013년에 입사해 단 4년 만에 과장 직함을 단 이주현

과장이다. 학습근로자들로부터 학습기간 내내 감사했던 선배로 여러 차례 언급된 이 과장은 입사 당시 폴리텍대학에서 용접을 전공한 학생이었다. 그러나 취업이 쉽지 않았다. 여자는 용접을 제대로 못 할 거라는 편견과 적지 않은 나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김대인 대표는 선뜻 사람을 받아들였다. 차별도 편견도 없이 오직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그의 성정 덕분이었다. 그렇게 입사한 이주현 과장은 일학습병행훈련에 참여했고 훈련부터 실무까지 뛰어난 역량을 갖춘 인재로 거듭났다. 능력에 따른 빠른 진급은 이 회사에서 당연했다.

“이 교육훈련 과정의 가장 큰 장점은 배움이 곧 일이고, 일이 곧 배움이라는 것이었어요. 전체부서를 돌면서 업무를 배우니까 제품을 크게 조망하는 눈이 생겼고 이는 현장업무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꿈이 있다면 꾸준히 실력을 갈고닦아 부사장 자리까지 올라가 보는 거예요(웃음).”

2014년 3월 제1기생을 모집한 이래 지난 6년간 1기에서 12기까지 총 30명이 수료했고 그중에서 25명이 회사의 중추적인 인재로 근무하고 있다. 대표가 가진 숙련기술에 대한 열의 그리고 일학습병행을 통해 중소기업이 고질적으로 가진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었고, 생산제품에 대한 성능과 품질,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숙련기술인들이 이끌 국가 경제

김대인 대표는 자신이 가진 기술과 노하우를 주변에 아낌없이 나누고 전파하고자 한다. 그의 시도는 ‘나 혼자 달려가는 게 아니라 산업이 커져야 한다’라는 거시적인 꿈 안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 명장으로서 국가의 소중한 인적자원인 청년들에게 기술을 익힐 기회를 주고 일자리를 제공하며 더 나아가 미래의 꿈을 제시하는 것은 저의 오랜 소임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뿌리기술과 제조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지금이 바로 숙련기술인이 재조명을 받고 나라의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울 기회라고 봅니다.”

“

장기근속자들은
후배 학습근로자들의
부족함을 메워주며
모범을 보이고,

후배 학습근로자들은
자기 개발의 기회를
자연스럽게 얻어
공동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

숙련기술에 정년은 없다. 하지만 큰 가능성이 있다. 명예퇴직, 중도퇴직이 흔해진 시대에 기술은 자기 개발, 역량개발로 지속성장이 가능할뿐더러 창업까지 가능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주)대흥소프트밀의 장기근속자들은 후배 학습근로자들의 부족함을 메워주며 모범을 보입니다. 후배 학습근로자들은 이 덕분에 자기 개발의 기회를 자연스럽게 얻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공동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이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랍니다.”

김 대표의 간곡한 당부가 이어진다.

“특히 이 시대 어머니들께서 숙련기술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알아주신다면 우리 경제의 전망은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숙련기술의 이점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열리고, 기술인들을 전문가로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숙련기술인들이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 날까지 기술인력 양성에 온 마음을 다 하겠다는 김대인 대표. 그의 목소리에 담긴 명장의 혼이 묵직하고 깊게 마음을 울린다.

새로운 직업의 발견,

그 시작을 자격증과 함께하다

양성진 — 머크일렉트로닉머티리얼즈



사회의 첫발, 그리고 방향

나는 대전의 한 공업고등학교 기계과를 졸업한 후 전기용 접기능사, 수치제어선반기능사, 선반기능사 3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19살에 첫 취업을 했다. 정밀가공업체에서 12시간씩 2교대 근무를 했지만 육체적인 힘듦보다는 첫 사회생활인 만큼 즐거움이 커던 시기였다. 시간이 흘러 결혼도 하고 이직한 중견기업에서 4년 정도 근무했을 때였다. 난 교대 근무로 지쳐가고 있었고 다람쥐 셋바퀴 같은 삶이 지겨워졌다. 그렇게 또 이직했지만 생산직의 특성상 반복되는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직은 되풀이됐지만 점점 규모가 작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한 채 또 다른 이직을 위해 취업사이트를 찾아보고 있었다. 방황과 함께한 스물아홉 살. 나는 어느덧 다섯 번째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

직업의 발견과 새로운 시작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내 마음을 사로잡는 일을 발견했다. 바로 설비관리, 시설관리 업종이었다. 자세히 알아보니 보일러취급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자격증이 필수인 직종이었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 알아보던 중 직업전문학교라는 곳을 알게 됐고, 국비지원 실업자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생산직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

보일러취급기능사와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모두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까지 마쳤다. 공식적으로 최종합격자 발표가 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2차 시험을 잘 보았던 나로서는 합격을 확신했다. 결과를 기다리던 중 청주의 한 반도체 회사의 설비 관리 공고를 봤다. 그러나 보일러, 공조냉동 자격증 소지자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채용 담당자에게 일주일 후면 최종합격자 발표가 나오, 자격증을 받을 수 있으니 면접만 보게 해달라고 사정했다. 우여곡절 끝에 면접을 본 뒤 합격했고, 설비관리인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그리고 입사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자격증 합격자 발표가 났고, 그토록 기다리던 두 개의 자격증을 얻었다.

도전을 통해 계속되는 성장

책에서만 보던 대형 산업용 보일러와 냉동기, 공조기 등을 현장에서 실물로 보면서 나는 그 매력에 빠지게 됐다. 하지만 더 나은 조건의 직장을 얻기 위해 자기 개발을 지속했다. 그 결과 2008년도에 보일러, 공조냉동을 시작으로 가스기능사, 위험물기능사를 취득했고, 2009년도에는 전기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산업안전기사 등 총 3개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후에는 전문학사 취득에 도전했다. 교대근무와 학비의 부담으로 고민을 하던 중 학점은행제를 알게 되었고, 기사 자격증이 학점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시 한번 자격증의 가치가 빛나는 순간이었다. 2010년에는 기능사 자격증 6개와 기사 자격증 2개의 힘으로 경기도 안성의 한 회사에 정규직으로 합격을 했다. 회사에 다니면서도 가스기능

장 자격증을 얻기 위해 주경야독으로 공부한 결과 2011년, 마침내 가스기능장 자격증과 함께 전문학사 학위증을 받을 수 있었다.

엔지니어로의 성장, 미래를 준비하다

사내 최초의 기능장이자 최연소 기능장이 된 나는 자격증 취득을 통해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이는 또 다른 동기부여로 이어졌다. 가스기능장 취득으로 받게 된 전문학사를 활용하여 2014년도에 4년제 대학교로 편입했고, 2년간 주경야독한 결과 2016년도에 안전공학 학사학위를 받게 되었다. 201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내 에너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기본적인 에너지사용량을 관리하고 개선해나가는 업무를 하면서 에너지경영시스템인 ISO 50001 인증도 취득하였고, 퇴근 후에는 저녁 시간을 틈틈이 활용하여 노력한 끝에 건축설비기사를 취득했다. 2018년, 나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수원에 위치한 공학대학원에서 에너지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다. 후진 양성에도 관심이 있어 상반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나에게 자격증은 인생의 등대 같은 존재다. 어둡고 깁깝해 보였던 나의 미래에 한 줄기 빛이 되었고 그 빛으로 인해 직업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행복도 얻을 수 있었다. 자격증 취득이 내 인생의 변환점이 되었듯이 청년들에게도 자격증이 인생의 의미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지키는 자격

수질환경기사



66

수질환경기사는
깨끗한 물을 위해 힘쓴다

99

수질을 개선하는 자격, 수질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는 수질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일을 한다. 측정기기를 이용해 수질오염물질 발생 정도를 측정하고 분석하며, 다각적인 연구와 실험분석을 통해 오염의 원인을 파악하여 방지대책을 마련한다. 수질오염 물질을 제거·감소시키기 위해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계하고, 시공과정을 감독하며, 운영 관리 및 문제점 등을 점검하는 작업도 수행한다.

검정형 자격 취득 방법	시험과목	검정방법
	필기 : ① 수질오염개론 ② 상하수도계획 ③ 수질오염방지기술 ④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⑤ 수질환경관계법규 실기 : 수질오염방지 실무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필답형(3시간)
활용정보	합격기준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공, 제약, 도금, 염색, 식품, 건설 등의 오·폐수 배출업체, 환경오염측정업체, 폐수전문처리업체, 수질오염방지시설업체, 환경시설관리업체, 환경영향평가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정부의 환경관련기관, 환경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 등에 환경연구원으로 진출하여 수질오염 관련 연구업무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응시자격
공통



01 기술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산업기사
-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 산업기사 + 실무경력 1년
- 기능사 + 실무경력 3년

토양환경기사



66

토양환경기사는
건강한 토양을 위해 힘쓴다

99

토양오염을 개선하는 자격, 토양환경기사

토양환경기사는 오염된 토양을 정화·복구시키고,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토양 및 지하수를 채취하여 토양오염도 측정기를 이용해 시험·분석하고, 중금속 및 기름 등의 오염분포도를 파악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또한, 다양한 토양정화공법을 이용한 정화 계획안을 마련하고, 정화 기술 및 시스템을 설계하며, 정화작업을 감독한다.

검정형 자격 취득 방법	<p>시험과목</p> <p>필기 : ① 토양학개론 ② 토양 및 지하수 오염조사기술 ③ 토양 및 지하수 오염정화기술 ④ 토양 및 지하수환경관계법규</p> <p>실기 : 토양오염조사 및 정화실무</p>	<p>검정방법</p> <p>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필답형(3시간)</p>
	<p>활용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양 및 지하수환경복원업체, 환경영향평가업체, 환경컨설턴트기관 등의 환경관련 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 환경관련 정부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환경관련 공공기관이나 연구소 등으로 진출하여 환경오염 정화기술업무 및 연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p>합격기준</p> <p>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p> <p>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p>

02 관련학과 전공자

- 대졸(졸업예정자)
- 기사 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 3년제 전문대학 + 실무경력 1년
- 2년제 전문대학 + 2년
- 산업기사 수준의 훈련과정 이수 + 2년



03 순수 경력자

- 실무경력 2년
(동일, 유사 분야)



~~~~~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한 번쯤은 영상 속 주인공이 되어보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가상의 세계가 현실이 되는 특별한 체험을 하고 싶다면, 올여름 여행지로 촬영 세트장을 추천한다. 세트장의 시대적 배경에 맞춰 시간을 뛰어넘는 체험도 해보고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어보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 드라마 속으로 떠나는 여행

국내 촬영 세트장 여행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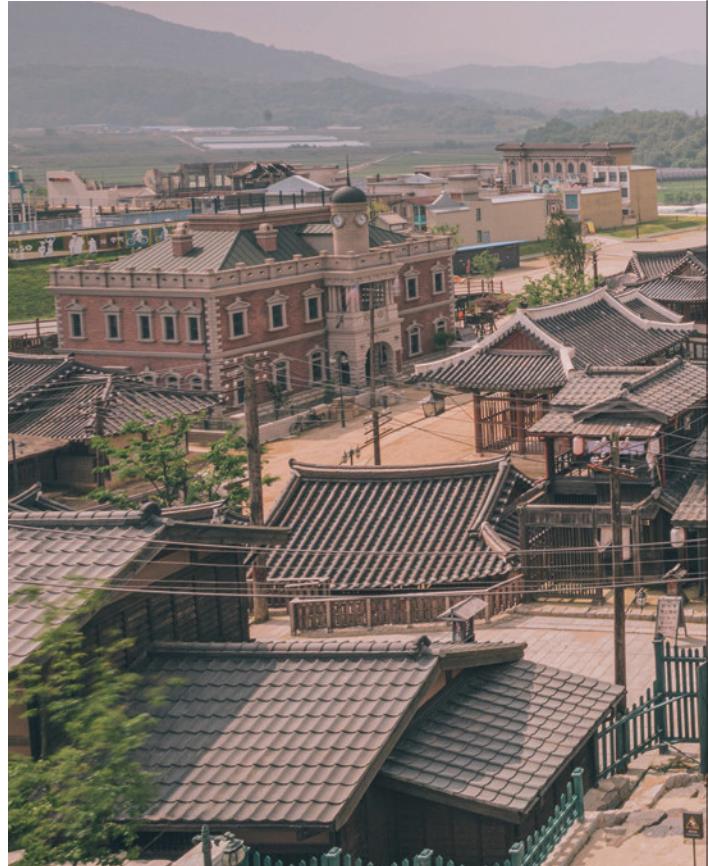


~~~~~

개화기 시대의 향기, 논산 선샤인스튜디오

2018년 방영한 tvN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을 재밌게 봤다면 꼭 한번 들러야 하는 곳이 있다. 바로 미스터 선샤인의 촬영장으로 활용했던 논산의 ‘선샤인 스튜디오’다.

약 6천 평 규모의 부지에 근대양식 건축물 5동, 와가 19동, 초가 4동, 적산가옥 9동이 어우러져 1900년대 초반 개화기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현재 이곳은 국내 드라마와 영화의 근대시대 촬영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다양한 교육, 전시, 체험시설로 주민들에게 개방되어 국내 유일의



개화기 테마파크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이곳 건물들은 단순히 촬영을 위한 세트장이 아니라, 실제 건물을 지어 조성한 것으로 실내관람이 가능하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완성도 높은 개화기 건물양식과 소품, 자연조경은 실제 드라마 속에 들어왔다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다.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구매하고 들어가면 처음 만나는 곳은 ‘글로리 호텔’이다. 드라마 주인공들이 술을 마시고 놀음을 즐기던 호텔로 복고풍 인테리어가 구한말의 향기를 풍긴다. 이곳을 나와 걷다 보면 여주인공의 집이었던 한옥, 최초의 전기회사 건물을 복원한 ‘한성전기’, 대한제국 시대 덕수궁 정문을 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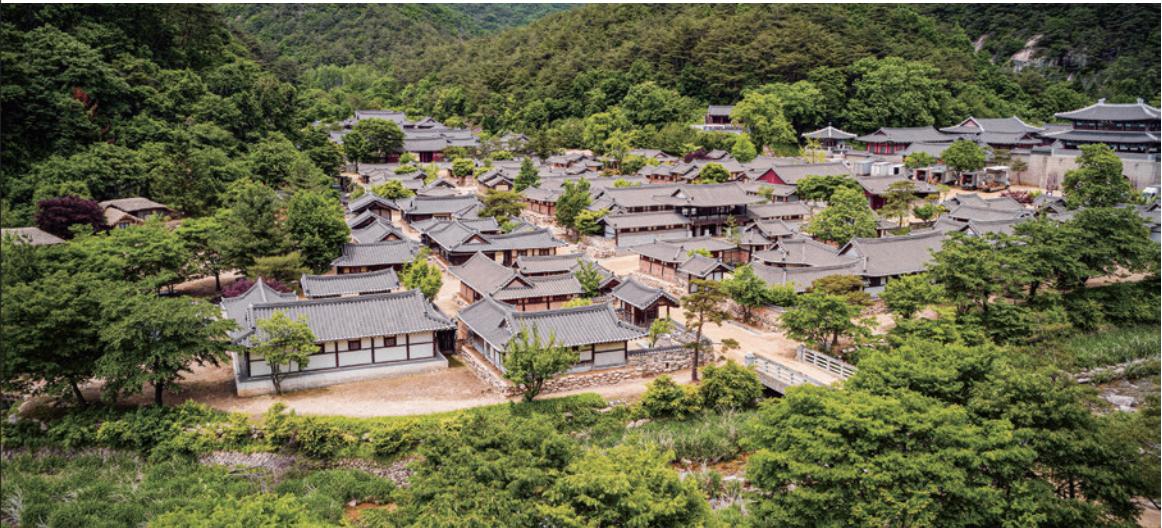


현한 '대안문' 등 드라마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 건물들이 줄지어 있다. 특히 개화기 원수부 건물을 복원한 양품점에는 미스터 션샤인 배우들이 입었던 의상이 전시되어 있으며, 개화기 시대의 의상을 대여해 입어볼 수도 있다. 또한 마당집 고방, 문방구 전시관, 동매집 등에서는 다양한 기획전시가 마련되어 찾아온 이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 논산 선샤인스튜디오

- 📍 충남 논산시 연무읍 봉황로 90
- ₩ 성인 7,000원, 청소년 5,000원,
소인(만3~12세) 3,000원, 유아 무료(36개월 미만)





1



2

조선 시대의 고즈넉함을 품은 곳,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은 대한민국 사극의 대부분을 촬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극 촬영장이다. 2000년에 준공된 KBS 사극촬영장을 문경시가 지원하여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리모델링했다. 2008년에 양반집, 광화문, 동궁, 궐내각사 등 103동을 추가 건립했고, 현재 130동의 세트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에서 촬영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킹덤’을 포함해 ‘해를 품은 달’, ‘역적 : 백성을 훔친 도적’, 영화 ‘남한산성’, ‘왕의 남자’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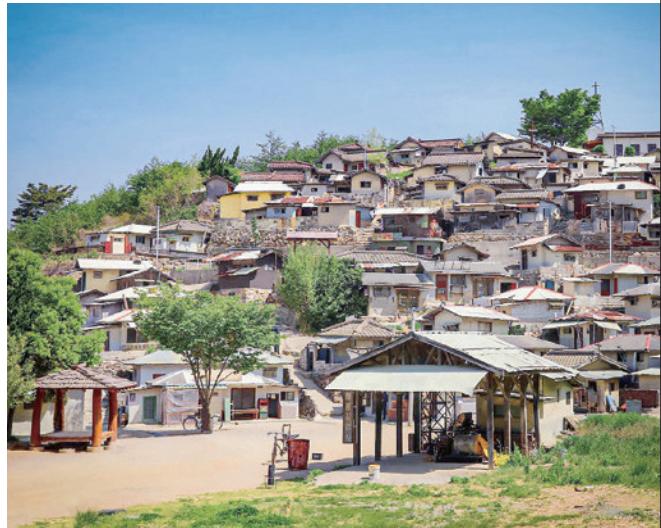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에는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도 마련되어 있다. 매표소에서 50m 떨어진 ‘사정전’ 내 용상체험장에서는 용포와 당의를 입고 왕과 왕비가 되어보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을 느껴보자.

홍보관인 ‘강녕전’에서는 문경새재오픈세트장에서 촬영했던 모든 드라마와 영상물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또 건물 내부에는 배우들이 실제로 입었던 의상과 소품, 극본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촬영장 건립과정 및 촬영 전경이 담긴 사진도 살펴볼 수 있다. 홍보관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사극 주인공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으며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에서의 추억을 쌓아보자.

추억 속으로 떠나는 여행, 순천 드라마 촬영장

새로움을 뜻하는 ‘뉴(New)’와 복고를 뜻하는 ‘레트로(Retro)’를 합친 ‘뉴트로(New-tro)’, 즉 복고를 새롭게 즐기는 문화가 인기를 얻으면서 덩달아 뜨겁게 떠오른 곳이 있다. 바로 1900년대 서울의 모습을 생생하게 간직한 영화·드라마 촬영장, ‘순천드라마 촬영장’이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시대별로 세 개의 마



3

을, 200여 채의 건물이 지어져 있는 이곳은 1만 2천 평의 면적으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마을은 ‘서울 달동네 세트장’, ‘서울 변두리 세트장’, ‘순천읍 세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큰 사랑을 받은 작품들이 다수 제작되면서 순천드라마촬영장은 일명 ‘행운을 부르는 촬영장’으로 통한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50년대부터 80년대에 이르는 세월 속 형제의 인생을 그린 인기 드라마 ‘사랑과 야망’, 1971년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슬픈 사랑을 그린 ‘님은 먼 곳에’, 50%에 육박하는 시청률을 올린 국민드라마 ‘제빵왕 김탁구’ 등이 있다. 옛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체험시설도 있어 50~60대 관람객들에게는 그리운 향수를 선물하고, 젊은 세대에는 1960년대 과거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옛날 교복을 입고 고고장에서 춤을 추고, 시골 장터에서 달고나 체험도 즐기며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는 색다른 경험을 누려보자.

1,2—문경새재 오픈세트장

3—순천 드라마세트장

• 드라마 촬영지 관람 TIP •

01——모든 촬영 세트장은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하는 날에 개장하지 않는다.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관람이 가능한지 알아보자.

02——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의상 대여가 제한된 곳이 많다. 의미 있는 기념사진을 찍고 싶다면 배경에 어울리는 의상을 준비해 가자.

▶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 경북 문경시 문경읍 새재로 932

₩ 어른 2,000원, 단체어른 1,500, 어린이 500원,
단체어린이 400원

▶ 순천 드라마 촬영장

📍 전남 순천시 비례골길 24

₩ 성인 3,0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000원

오프라인 쇼핑을 하다 보면 특별히 눈길이 가거나 기억에 오래 남는 매장이 있다. 콘셉트가 독특하거나, 신선한 체험이 가능한 매장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매출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브랜드와 상품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장을 기획하는 직무가 바로 VMD다. 이번 호에서는 VMD의 정의와 역량, 면접 팁까지 알아본다!

미적 감각과 마케팅 센스

모두 필요한 VMD직무 분석

VMD는 어떤 직무인가요?

VMD란, Visual Merchandiser의 줄임말로, 매장 등 상품을 판매하는 환경을 시각적으로 기획하는 전문가를 의미한다. VMD는 매장주가 마케팅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시각적으로 연출하고 관리한다. 예를 들어, 매장을 신설할 때 어떤 콘셉트로 상품이 구성·배치돼야 효과적인지를 판단하고, 매장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을 분석해 인테리어와 주력 제품을 결정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즉, VMD는 매장을 예쁘게 꾸미는 것만이 아닌, 물건이 잘 팔리게 매장 전반을 기획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디스플레이어
displayer

인테리어 플래너
interior
planner

머천다이저
merchandiser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가요?

01 —— 기획력

02 —— 미적 감각

03 —— 체력

04 ——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05 —— 마케팅 감각

VMD는 손님들이 많은 낫을 피해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무거운 자재를 옮겨야 하는 일도 있어 강한 체력을 요구한다. 또한, 브랜드와 매장상황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며 판매환경을 기획해야 하기에 다양한 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하다. VMD는 고객의 동선을 고려한 상품 매치로 체류시간을 증대시키고 제품의 노출시간을 늘려서 구매욕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마케팅 감각 역시 필수적이다.

VMD직무 면접

TIP

01 —— 포트폴리오 있다면, 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사용한 컬러와 패턴, 직선과 곡선 등의 사용 이유를 말할 수 있을 만큼 콘셉트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 포트폴리오가 시각적으로 예쁜 것은 기본이다. 그 안에서 구매욕을 증가시키는 요소를 설명하는 것이 다른 지원자와의 차별을 만드는 비결이다.

02 —— 좋아하는 브랜드를 물어본다면?

선호하는 브랜드와 면접 보는 브랜드의 VMD 공통점을 찾아서 이야기해야 한다. 구체적인 타깃, 콘셉트,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단가를 낮추는 효율성, 구매력을 상승시키는 요소를 중점적으로 설명한다면 면접장에서 돋보일 수 있다.

03 —— 면접 전 매장을 직접 방문해보자!

매장에 방문해서 영업직원과의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 소비자가 특정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엔 자신이 소비자라고 생각하고 매장을 둘러보자. 그때 해당 매장의 장단점 등 느껴지는 바를 기억해두면 좋다. 또 온라인의 후기를 둘러보며 소비자들의 반응을 먼저 살피는 것도 면접장에서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를 증명하는 도구가 된다.

여름을 알리는 장마가 시원하게 내리는 7월의 어느 날. 국가직무능력표준(이하 NCS)의 A부터 Z까지를 책임지는 국가직무능력표준원 직원들이 모여 팀워크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모두 한마음이 되어 즐긴 ‘협동 공 뛰기기’ 게임 현장을 전한다!



하나의 목표를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국가직무능력표준원
협동 공 뛰기기 도전

정정당당! 열정의 대결 한판

다 함께 마음 편히 얼굴을 마주하기조차 힘든 요즘. 국가직무능력표준원의 직원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그래서인지 강당에 들어선 직원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어색함이 공존했다. 게임에 참여하는 직원 16명이 모두 모인 후 게임 진행을 위해 제비뽑기로 팀을 나눴다.

두 팀의 팀명을 정할 차례. 한참을 고민하더니 각 팀에서 직원의 이름이 하나씩 호명된다. 각 팀의 ‘인기 직원’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의 이름으로 팀명이 정해진 것이다. 제비뽑기에서 A를 뽑은 팀은 공정채용지원TF 전승규 대리의 이름을 따서 ‘전승규팀(이

하 전승팀)’으로 팀명을 정했다. B를 고른 팀은 NCS 품질관리부 조은혜 대리의 이름을 이용하여 ‘조은혜조은팀(이하 조은팀)’으로 팀명을 지었다. 각 팀의 주인공이 된 두 직원이 몸 둘 바를 모르고, 또 그 모습을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보는 나머지 직원들. 국가직무능력표준원의 화목한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순간이었다.

전승팀은 다 함께 “승규! 승규! 파이팅!”을 외치며 승리를 다짐하고, 조은팀은 “조은혜! 조은팀!”이라고 구호를 외치며 손을 모아 응원했다. 한 번 더 팀명의 주인공들 얼굴은 발그스레해졌지만, 이것 또한 다함께 웃을 수 있었던 추억이 되리라.



이날 직원들이 참여한 게임은 ‘협동 공 투기기’. 합판에 연결된 끈을 8명의 팀원이 각각 잡고 함께 움직여 공을 투기는 게임이다. 게임도구를 발견한 직원들은 ‘회사에서 이런 게임을 할 줄 몰랐다’라며 당황하는 반응부터 ‘재밌겠다’는 반응까지 제각각이다. 하지만 합판에 연결된 끈을 손에 쥐자 모든 직원의 눈빛이 한순간에 달라졌다. 전승팀에서는 투어 오르는 공을 헤딩으로 전부 막아내겠다는 의지까지 보였다.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

게임이 시작되고 전승팀이 첫 번째 공 투기기에 도전

했다. 역시 첫술에 배부르기란 힘든 것일까. 세 번 만에 공이 밖으로 텡겨 나가버린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조은팀의 차례가 왔다. 역시 첫 번째 도전에서는 조은팀도 두 번 만에 공을 놓쳐버린다.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순간. 이제 조금씩 감을 잡기 시작한 직원들이 더욱 공에 집중해본다. 전승팀의 두 번째 도전이 시작됐다. “하나, 둘, 셋, 넷!” 아쉽게도 숫자 넷에 공이 밖으로 텡겨 나오며 구성원들의 탄성이 강당을 가득 메웠다. 조은팀에게 이목이 집중되는 순간. 조은팀은 공을 투기기 시작하더니 다섯을 가뿐히 넘기고 드디어 두 자릿수에 도달했다. 조은팀은 두 번째 도전에서 열 번을 텡겨 지금까지 최고점수를 냈다. 기쁨으로 서로의 손을 맞잡은 조은팀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만개했다. 하지만 아직 승리를 확신하긴 이르다. 전승팀에게 마지막 기회가 남았다.

마지막 기회라는 것에 부담이 컸던 탓일까. 전승팀의 공이 단 두 번 만에 밖으로 텡겨 나가버린다. 조은팀의 승리로 게임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 조은팀에서 세 번째 게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가치 있게 여기는 국가직무능력표준원의 정신이 돋보이는 순간이었다. 조은팀의 마지막 도전은 5점. 결과는 최고점수 10점으로 조은팀의 승리다. 이긴 팀도 진 팀도 열정으로 가득 찼던 짧지만 의미 있는 대결이었다.

하나의 목표를 바라보면서 다 함께 몸을 움직여야 하는 ‘협동 공 투기기’는 국가직무능력표준원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 NCS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원이 있어 NCS가 교육·훈련 및 산업현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함께 손과 발을 맞춰 나아가는 국가직무능력표준원의 노력이 있기에, 우리는 발전하는 미래의 산업현장을 꿈꿀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협력 공튀기기도전, 어땠나요?



(뒷줄 왼쪽부터) 변호우 과장, 김상규 차장, 김명석 근로장학생, 전진열 대리, 황정연 부장, 이주형 과장, 황시영 대리, 박계영 원장, 박정재 대리, 황종록 부장,

박선영 과장, 이한성 부장, 최영애 대리, 이지언 과장

(앞줄 왼쪽부터) 전승규 대리, 정지인 과장, 김연식 차장, 조은혜 대리, 천지영 대리

NCS개발개선부 박선영 과장

처음 해보는 게임이라 조금 어려웠지만,
표준원 직원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공정채용지원TF 김연식 차장

최근 코로나로 인해 함께 시간을 보낼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게임으로 우리 표준원의 협동심을 느낄 수 있어서 뜻깊었습니다.

공정채용지원TF 전승규 대리

국가직무능력표준원의 팀워크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NCS품질관리부 조은혜 대리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공을 튀기면서 협력할 수 있어서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NCS품질관리부 황시영 대리

오랜만에 몸도 움직이고, 웃으면서 소통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NCS기획부 천지영 대리

근무시간에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덕분에 업무 효율이 오를 것 같아요!



MINI INTERVIEW

국가직무능력표준원 박계영 원장 인터뷰

국가직무능력표준원을 소개합니다!

Q ————— 국가직무능력표준원에 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 국가직무능력표준원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고 분야별로 개발된 NCS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공단 내 부설기관입니다. 특히 작년은 NCS 품질관리 원년의 해로, 기존 NCS센터에서 지금의 국가직무능력표준원으로 격상되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NCS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 ————— 국가직무능력표준원에서 생각하는 NCS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A —————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일종의 ‘직업(직무) 관련 종합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내용을 분야별 전문가와 노동계, 정부부처, 대국민 의견까지 모두 수렴하여 개발한 것인 만큼 우리나라 교육·훈련, 자격, 일 모든 분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NCS를 활용하게 된다면 교육·훈련·자격·일, 전 분야를 하나의 기준으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또, 산업현장 직무 중심의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불필요한 스펙이 아닌 능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핵심 인프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평생능력개발의 기반이 되어 국가경쟁력이 향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Q ————— 올해 국가직무능력표준원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A ————— 우리 원의 경영목표는 ‘고품질 NCS 확산으로 능력중심 공정사회’를 선도하는 것입니다. 그간 1,022개의 NCS가 개발되었으며, 그중 일부 직무는 현장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하기도 합니다. 올해에는 한국판 뉴딜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기술 활성화 등 급변하는 산업시장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양질의 NCS를 개발·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통과 배려, 현장과 전문성이 방침인 만큼 올해도 표준원 직원 간의 소통, 표준원과 고객 간의 소통에 적극적인 열린 표준원이 되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교육·훈련·자격·일’이 NCS 능력단위를 기본 단위로 상호 간 인정되고 분야 간 통용될 수 있도록 ‘능력 단위 인정제 시범사업’과 ‘NCS은행제’를 추진하여 능력이 중심이 되는 국가역량체계(KQF)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너

어디에서



외국인고용지원부 조은하 차장

「한국인 이야기(너 어디에서 왔니)」는 한국인도 모르고 있는 한국문화(전통, 관습 등)의 기원과 의미에 대해 광범위한 자료와 함께 이야기하듯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우리 한국인들의 일반적인 모습들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과학을 뛰어넘는 경이한 모습임에 감탄하게 된다. 세상에 나오는 순간 한 살이 되는 한국인! 서양인에게 없는 몽고반점과 삼신할미에 대한 연결, 이유식이 없던 옛날에 할머니들이 어미 새처럼 음식을 씹어서 아이들에게 먹이고, 포대기에 아이를 업고 밭일을 나갔던 우리 어머니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의 뿌리와 문화의 근간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다.

외국인고용지원부 탁윤환 과장

자신의 뿌리는 물론이고 민족의 뿌리를 찾는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의무다.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부분에 충실히 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짚어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어쨌든 좋은 기회였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인의 탄생 뿌리를 우리나라 대 석학이신 저자에게서 들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쉽게 들을 수 없었던, 우리 한국인이 의식하지 못했던 생명에 대한 기억과 문화 유전자를 해독함으로써, 우리가 모두 21세기 당당한 주역임을 일깨워준 소중한 책이었다.

공단 경기북부지사

**독서모임 베이비북스가 바라본
한국인의 탄생과 성장**

자격시험부 이혜진 과장

우리 인류의 발달과정과 채집 시대로부터 정보화 사회로 넘어가는 문명의 파도타기를 총망라한 저자의 열정과 연구 자세에 경의를 표한다. 저자는 그동안 시대의 흐름을 통찰하고 변혁시켜 온 정신사의 궤적과 한국 사회의 방향을 제시해 온 시대적 선언을 주도해왔다. 그는 80대 삶의 끝자락에서 오히려 ‘탄생’을 말한다. 저자는 죽음을 알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인에게는 오래전부터 생명 자체의 풍부한 의식과 경험이 있다.’ 한국의 생활과 문화 속에 그것이 고스란히 남아 있고 그것을 바로 찾아내 이야기로 세세하게 들려준다.

왔니?

외국인고용지원부 백수경 주임

한국인의 탄생과 성장을 통해 한국인만의 문화와 특징이 무엇인지, 태어나는 한국인의 본성과 심리적인 상태, 삶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요소들과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수많은 것들이 어떻게 한국인만의 문화로 형성될 수 있었는지 등 한국인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 오랫동안 이어온 생명줄처럼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여러 가지 행동과 말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의 생명과 함께 자연스럽게 전해 내려온 문화, 한국인만이 가진 유전자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유익했다.

외국인고용지원부 김석은 과장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이 과학적이고 문화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산모가 출산하면 미역국을 먹는데, 미역은 실제로 출산 후 상처를 아물게 할 뿐만 아니라 몸 안에 피를 막게 해주는 효험이 있다. 이 책을 읽으면 태명, 삼신할미, 어부바, 돌잡이 등 우리 한국인들에게 너무나 친숙하고 당연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보따리를 하나씩 푸는 재미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편리함이 과학적이라는 사고로 서양의 습관이 배는 사이에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다.

직업능력개발부 이준엽 주임

저자는 바로 한국인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이것은 역사에 등장하지 않는 ‘나’의 이야기, ‘너’의 이야기이며 ‘우리’의 이야기 즉,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 책을 읽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한국인 문화 유전자의 모든 암호가 풀린다. 비교적 60년대부터 생활해온 나이이기 때문에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정경들이 많아서 더욱더 가깝게 느껴졌다. 아쉽게도 그런 정경들이 갈수록 사라져가고, 젊은 세대들은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있어 아쉽기도 하다. 하지만 저자의 말대로 다시 회귀할 거라는 바람을 가져보기도 한다.



한국인 이야기 | 이어령 저, 파람북

저자는 한국인의 뿌리와 근간에 대한 ‘이야기보따리’를 하나씩 푸다.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고개를 넘듯이 태명 고개, 배내 고개, 출산 고개, 삼신 고개, 기자귀 고개, 어부바 고개, 돌잡이 고개, 세 살 고개, 나들이 고개, 호미 고개, 이야기 고개의 열 두 고개를 천천히 넘어간다. 그러면서 ‘너 어디에서 왔니?’에 대한 해답을 재밌고 독창적이고 설득력있게 풀고 있다. 즉, 「한국인 이야기」는 한국인의 집단 기억과 문화적 원형에 대해 되짚은 이야기보따리이다.

관행을 뿌리칠 용기

강용찬

목원대학교 무역학과 명예교수

홍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청렴교육원장

새로 취직을 하거나 조직의 책임자로 취임하면 우선 그 조직의 조직문화와 관행을 익히느라 시간을 보낸다. 새로운 포부와 계획은 나중 일이다. 직급을 구분하지 않고 조직의 고참(古參)들은 신참자를 조직문화에 익숙하도록 안내한다. 연수도 하고 실습도 한다. 조직문화와 관행이 규칙과 매뉴얼에 충실한 것이라면 당연히 익히고 따라야 할 것이다. 문제는 선택적이고 재량권이 주어진 일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이다. 여기서 능력의 차이가 드러나고 그 조직에 대한 기여도가 달라지기 시작한다. 거창하게 막스 베버의 소명으로서의 직업관을 인용할 필요도 없다. 한 사람이 그 조직을 통해서 자기 성취를 이루고 조직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지가 여기서 결정된다. 구태의연한 멸사봉공이나 선공후사 같은 명언을 떠올릴 필요도 없다. 우리 사회가 개인의 행복과 성공을 우선하는 체제지만 진정한 성공은 이타적 사회공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재량권이 주어진 일을 공정하고 정직하게 처리하기는 생각보다 어렵다. 최고 책임자가 인사권을 행사할 경우 조직을 위한 마음으로 불편부당하게 공정한 인사를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금전 처리와 관련해서는 더 어렵다. 대외거래를 할 때 은밀하게 주어지는 리베이트의 유혹을 뿌리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영리 기업들 간의 거래에서는 서로 주고받는 관행일 수 있지만, 공직자가 받는 리베이트는 뇌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직급에 따라서 주어지는 업무추진비(속칭 판공비)를 제대로 공적인 업무비용에만 쓰기란 더 어렵다. 영수증 처리하는 경우도 그렇지만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경우까지 정말 사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주어진 한도금액까지는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고 허용되는 것이 관행이어서 그 씀씀이를 부추기기도 한다. 고참 직원들은 은밀하게 공금을 이용하여 사익을 취하던 관행을 알려주기도 한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반 기업의 경우 공개 여부는 자율적이다. 공공기관 웹사이트를 보면 기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공개되고 있다.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불투명한 업무추진비 사용이 제한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되지 못한다. 어느 장관 후보자가 검증과정에서 대학 총장 시절 판공비(업무추진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 드러나서 낙마한 일이 있었다. 전임자들도 그렇게 해온 것이 관행이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예산이 부족하여 국정원의 특활비를 전용해서 사용하던 관행이 논란이 되기도 하였고, 어느 국회 상임위원장은 책정된 특활비 잔액을 가정 생활비로 썼다고 고백해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결국 집행하는 사람의 자세로 귀착된다. 새로 일을 맡은 사람은 앞 사람이 했던 관행이라고 해서, 조직문화라고 해서 따라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 판단해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과감히 관행을 뿌리칠 용기가 필요하다.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진정한 이익이 될 수 있다. 앞 사람이 갔던 길을 따라가면 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길이 낭떠러지로 가는 길일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중국 한(漢)나라 5대 황제 문제(文帝)는 가의(賈誼)라는 충신이 올린 상소를 명심하여 명군(名君)이 되었다. 상소는 전차복 후차계(前車覆 後車戒), 앞의 수레가 뒤집어진 길을 뒤 수레는 명심하라고 하였다. 조직 생활을 하는 모든 이들이 새겨들어야 할 경구이다. 아름다운 조직문화는 키워나가야 하겠지만 잘못된 관행은 나부터 고쳐나갈 각오로 일한다면 그는 분명히 성공의 길을 걷게 될 것을 확신한다.

HRD NEWS



핸드인핸드 릴레이 참여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6월 30일 ‘핸드인핸드 릴레이’에 참여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핸드인핸드 릴레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경제 기업 상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소셜 릴레이 캠페인으로, 참여자가 사회적 경제 기업 상품을 구매하여 다음 참여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단은 한국폴리텍대학 이석행 이사장으로부터 사회적 기업의 순수차 세트를 받았고, 캠페인 다음 참여자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종란 이사장을 추천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생활 밀착형 국가기술자격』 정보집 발간

공단은 6월 30일, 구인 및 취업 수요가 높은 국가기술자격 정보를 모아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 밀착형 국가기술자격」 정보집을 발간했다. 그간 국가자격정보 누리집 큐넷(Q-net)을 통해 자격정보를 제공해 왔으나, 이번에는 중장년, 국내체류외국인 등 온라인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책자로 제작했다. 특히, 이번 정보집은 코로나19 피해 업종 종사자와 취업 희망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63곳에 우선 배포한다.



**국가자격시험자에게
국제공인 영어시험 G-TELP 응시료 50% 할인**

공단은 7월 1일, (주)한국지텔프(대표이사 김현중)와 업무협약을 맺고, 국제공인 영어시험 G-TELP 응시료 5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G-TELP는 세무사, 노무사 등 국가자격시험의 영어과목 대체시험으로 활용되고 있다. 협약을 통해 국가자격시험 일부 종목 수험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G-TELP 정기시험 원서접수 시, 응시료 50%가 할인된다.

*자세한 내용은 큐넷(Q-net.or.kr)에서 확인



공단, 이노비즈협회와 손잡고 기술혁신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에 힘쓴다

공단은 이노비즈협회(회장 조홍래)와 7월 8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술혁신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기술 혁신 중소기업 18,528개사('20.6.30. 기준)에 기능 경기대회 참가선수와 청년 및 귀국외국인근로자의 취업과 교육·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 시작으로 오는 9월, 전국기능경기대회 기간에 전시부스를 운영하여 일자리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단-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직종 청년 해외진출 지원 협약 체결

공단은 한국디자인진흥원(원장 윤주현, 이하 진흥원)과 공단 본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디자인 직종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디자인 직종 해외취업박람회 등 해외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고, 해외 현지기업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디자인 직종 청년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0월 7일(수)~8일(목)에 디자인코리아 페스티벌 잡페어를 공동으로 개최하여 국가별 취업여건과 일자리 현황 등의 해외취업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단, 코이카와 손잡고 K-ODA 공동발굴에 나선다

공단은 7월 24일, 한국국제협력단 개발협력역사관에서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이미경, 이하 코이카)과 업무협약을 맺고 한국형 무상 개발협력사업(K-ODA) 공동발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양 기관은 외국인근로자의 귀국 후 재정착 지원, 개도국 직업능력개발 분야 무상 개발협력사업 발굴, 시행 및 평가, 글로벌 인재 양성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허가제와 연계된 ODA사업 추진은 새로운 시도로, 2022년 사업개시를 목표로 공단과 코이카는 지난해 말부터 네팔 귀국근로자의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신규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Letter box

구상희

공단의 과정평가형자격 시험으로 자격을 취득한 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배영한

자격증, 명장에서부터 여행 교양정보까지 두루 읽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양두승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소식들(영화, 트렌드 등)을 많이 다루어서 독자층을 넓혀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선우

직급과 상관없이 레트로 의상을 입은 총무부 사진을 보니 흥미로웠습니다! 정말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이광록

시니어 세대를 위한 코너 신설과 문화정보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선아영

<취업에 직방>에서 면접관들이 말하는 비대면 면접의 모든 것이 참고되고 유익했습니다.

홍종선

총무부의 <돌아온 팀플전>을 보고, 지역경제 활성화시키자는 좋은 목적을 이렇게 색다르게 할 수 있구나,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동네를 잘 관찰해야겠습니다.

장우익

사찰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꽃살창호가 장인의 손에서 아름답게 탄생한 <기술로 인생>을 보면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연인들이 만든 문화재가 후대에 달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김민중

배정일님의 글에서 나이에 국한되지 않고 도전하는 게 가능하다고 용기를 얻고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진현우

수여식 기사와 동영상이 연결되어서 생동감이 있네요. 또, 공단사업을 <현장사용법>을 통해 바로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HRDKorea

vol. 290



QR코드를 인식해
이번 호 의견을 보내주세요!

지난호 당첨자

구상희 55**	배영한 83**
양두승 08**	강선우 77**
이광록 38**	선아영 70**
홍종선 74**	장우익 39**
김민중 68**	진현우 35**

이번 HRDKorea 어떠셨나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상단 QR코드를 인식해

의견을 남겨주시거나

엽서, 이메일

(kyj626200@hrdkorea.or.kr/
이름, 연락처 기재)로 이번 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을
기재해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문화상품권(3만원권)을
보내드립니다.

당첨 안내는 기재해주신

연락처로 안내됩니다.

주의!

제대로 쓰지 않으면 예방효과가 없어요!

잘못된 마스크 착용, 안돼요!



① 코가 노출되는
마스크 착용

코와 입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게
바이러스가
다 들어가요!



② 턱에 걸치는
마스크 착용



③ 마스크 걸 면을 만지는 행위

든든한 내일을 그리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평생능력개발, 국가자격시험,
해외취업, 외국인근로자고용, 수련기술장려,
일학습병행,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블라인드 채용 등
국민의 일자리를 위한 국가 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으로
능력중심사회를 선도해갑니다.

절취선
①

보내는 사람

이 름 _____

주 소 _____

전 화 _____

--	--	--	--	--

우 편 엽 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수집 및 이용 목적 : 업서 당첨자 공지 및 상품 발송
 - 수집항목 : 이름, 전화번호
 - 보유기간 : 동의 철회 시까지, 수신 거부 시 즉시 삭제
 -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단, 거부할 경우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절취선 ②

HRD Korea

울산광역시 종구 종가로 345(교동)

한국산업인력공단 홍보실

HRD KOREA 담당자 앞 T. 052-714-8195

4	4	5	3	8
---	---	---	---	---

○ 이곳에 구멍을 뚫어서 벽에 걸어주세요

HRD Calendar**08**

2020년 8월 국가자격시험 일정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2	3	4	5	6	7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0회 소방시설관리사 2차 원서접수(8.3~8.7) ▪ 제6회 손해평가사 2차 원서접수(8.3~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8회 경매사 1차 시험 특별추가 원서접수(8.6~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 기사 제2회 실기시험(7.25~8.15) ▪ 제38회 문화재수리기술자 1차 시험(8.1)
9	10	11	12	13	14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1회 공인중개사 1,2차 원서접수 (8.10~8.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8회 청소년지도사 1차 추가 원서접수 (8.13~8.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8회 경매사 1차 시험(8.15) ▪ 제29회 공인노무사 2차 시험 (8.15~8.16)
16	17	18	19	20	21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5회 경영기술 지도사 1차 특별추가 원서접수(8.20~8.21) ▪ 검수사,검증사,감정사 2차 시험(8.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사 제3회 필기시험(8.22~23) ▪ 제28회 청소년지도사 1차 시험(8.22) 	
23	24	25	26	27	28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9회 청소년상담사 1차 원서접수(8.24~8.28) ▪ 가맹거래사 1차 원서접수(8.24~8.28) ▪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원서접수 (8.24~8.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사 제4회 필기시험 원서접수(8.25~8.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회 손해평가사 2차 추가 원서접수 (8.27~8.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장 제68회 실기시험(8.29~9.13) ▪ 기능사 제3회 실기시험(8.29~9.13) ▪ 제35회 경영기술지도사 1차 시험(8.29)
30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사 제122회 면접시험 원서접수 (8.31~9.3) 					

※ 자격시험 시행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큐넷(www.Q-net.or.kr)을 참조하세요.

▪ 원서접수 일정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이번 호에 실린 기사 중 가장 만족스럽고 유익했던 내용과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질文化遗产 ①

앞으로 <HRD KOREA>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사보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적어주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 혹은 이번 호 **HRDKorea**에 등장했던 인물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일자리 관련 슬로건을 자유롭게 만들어주세요. (예시)전 국민의 평생고용 역량을 키우는 No.1 HRD 파트너



질文化遗产 ②

○ 이곳에 구멍을 뚫어서 벽에 걸어주세요

